

발제	조 이름	조원 이름(조장)	해당 주차를 선택한 이유
피츠제럴드의 『위대한 개츠비』와 영화 <위대한 개츠비>(2013)	웨스트에그	허진웅 , 공혜영, 한태현	공혜영 : 저명한 문학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고 이에 대해 내용을 조원들과 토론하고 싶어 선택하게 되었다. 서예린 : 영화를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개츠비의 데이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보고 싶어 선택하게 되었다. 한태현 : 평소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볼 기회가 나지 않았던 위대한 개츠비를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감상하고자 선택하게 되었다. 허진웅 :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에서 영화를 보긴 했으나 영화에 담긴 심층적인 의미를 생각하지는 못하고 화려한 볼거리에만 집중해 본 기억이 있다.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영화가 가진 사회 풍자적인 면모와 해학적인 의미에 대해 다시 탐구하고 싶어졌다.
혜경궁 홍씨의 《한중록》과 영화 <사도>(2014)	4조	이민주, 안위수, 최유진, 강하늘	영화 <사도>를 인상깊게 보았고 사극에 평소 관심이 많았습니다. 또한 한국적인 느낌이 좋았으며 역사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이민주: 영화 <사도>를 인상깊게 보았으며, 평소 사극이나 역사물을 재밌게 보기 때문
넬라 라슨의 『패싱』과 영화 <패싱>(2021)	패싱	백중우 , 박재우, 권민주, 박송이	김태연 : 책의 주제가 다소 분명해 보였고 영화스틸컷이 흑백인 점이 마음에 들었다. 박재우 :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 상황이 현대 사회와 크게 다른 것 같아 흥미로웠다. 백중우 : 영화의 스틸컷을 인종의 정체성이라는 주제와 관련지어 흑백으로 구성한 점이 흥미로웠다.
미야베 미유키의 『화차』와 영화 <화차>(2012)	병장만기전역	장준형 , 도병현, 송우진, 이정환, 신관준	팀원 모두 이 작품을 보지 않았지만, 영화를 통해서 채무조정과 같은 경제적인 상황들을 영화를 통해 알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
제인 오스틴의 『엠마』와 영화 <엠마>(2020)	감성적이조	정육진 , 이경현, 권세은, 구본진	각자 선택한 이유가 다양합니다. 이윤지 이 작품을 소설이 아니라 영화로 처음 접하였는데 의상이나 연출을 통해 느낀 영국의 분위기가 매력적이어서 흥미롭게 보았습니다. 줄거리적인 부분도 와닿는 부분이 많아 책을 읽어보고 비교하며 작품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하였습니다. 이경현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퀸스 갬빗 작품을 재밌게 봤었는데 주연배우였던 안야 테일러 조이 분께서 이번 작품인 엠마 포스터에 계셔서 이 작품을 깊게 알아보고 싶어 선정하였습니다. 정육진 제인오스틴의 작품을 항상 오디오북과 같은 매체로만 접했고 감상해왔었는데, 들을때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책을 읽어봤으면 해서 선정하였습니다.
아기장수 전설과 영화 <마녀>(2018)	아기장수	김소혜 , 남채린, 이채원, 김나윤, 박윤서	영화 개봉 당시 재밌다는 말을 들었으나 고등학생이다보니 바빠서 보지 못했다. 그래서 보고 싶어하다가 이걸 선택하게 되었다. /아기장수 전설에 대해 아는 것도 있고, 개인적으로 설화나 판타지처럼 비현실적인 것들을 좋아하다보니 이걸 선택하게 되었다.
위화의 『허삼관 매혈기』와 영화 <허삼관>(2014)	허삼관	황수빈 , 김유신, 이호준, 안상준	'허삼관 매혈기'라는 작품을 접해보지 않아 가장 호기심이 컸던 작품이기도 하고, 영화가 원작을 망쳤다는 내용이 눈에 띄어서 선택하였으며 또한 작품에 대해 찾아보다 영화 감독이 하정우 배우님이라는 사실에 더욱 호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.
수잔 콜린스의 『헝거게임』과 영화 <헝거게임>(2012)	헝거게임조	최주란 , 이나영, 고지연, 하태준, 박연수	최주란 : 영화를 봤었는데, 색감과 연출이 기억남아서 소설과 영화를 더 정확하게 보고 싶어 선택하였다. 이나영 : 영화를 여러 번 인상깊게 본 기억이 나 소설과 영화를 함께 읽어보는 기회를 가지고 싶어 선정하였음 고지연 : 중학생 시절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이라서. 하태준 :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좋을것 같아서.